류가부치 용소

덴구다키 폭포 아래에 있는 조용한 이 용소의 물은 맑은 날에 햇빛이 비치면 선명한 푸른색을 띤다. 이 색은 기쿠치 계곡 강바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, 비교적 옅은 색의 바위 위를 미네랄 성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나타난다. 류가부치라는 이름은 깊은 수면에 용이 숨어 있다는 지역의 전설에서 유래했다. 이 부근에서 긴 쪽 산책로를 올라가면 느티나무나 단풍나무 그늘에 '기쓰네노카미소리'(Lycoris sanguinea)라고 하는 석산의 일종이 나 있다. 초봄에 이 식물은 좁고 긴 잎이 나는데 잎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면도칼과 닮아서 사람들은 여우가 숲을 돌아다닐 때 털을 정리하는 데 쓴다고 상상했다('기쓰네노가미소리'는 '여우의 면도칼'이라는 뜻이다). 주황색 꽃은 잎이 전부 시든 후인 8 월에 핀다.